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각자의 집

(“띵동” 소리가 들리고, 태훈, 수영, 민구, 정인, 옥만은 문 밖으로 나옵니다. 각각 나오는 장면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앞에 떨어져있는 초대장. 태훈이 그 초대장을 읽습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 무료한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월 00일 00시 장소: 00, 여러분을 기다리는 짹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래 하단엔 초대장을 보낸 곳의 전화번호와 각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ex) 000-000-000, 문태훈님께)

태훈: (속삭이듯이) 삶이 무료한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 참 나, 장난치나 요즘 이런 스팸도 다 있네. 어? 근데 이거 내 이름이잖아.

(태훈은 자신의 이름을 보고, 곧 바로 초대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통화음이 연결되는 소리 --- 뛸깍, 태훈의 전화씬을 다양한 각도로 여러 표정이 담기게 찍습니다.)

태훈: (목소리를 높여) 여보세요? ... 여보세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제 이름을 적어서 이딴 편지를 보내신 겁니까?

???: (NR) 안녕하세요, 태훈님. 많이 놀라셨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00기획사 지원팀의 이인우 지원실장입니다.

태훈: (경계하는 목소리로) 예?

인우: (NR)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저희 회사에서 기획한 ‘연애 마피아’라는 기획프로그램에 태훈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태훈: (어이없는 표정으로) 하.. ㅋㅋㅋㅋㅋ.. 요즘엔 이런식으로 피싱을 하나봐? 미친x끼들 당장 신고할거니까 기다..

인우: (NR, 태훈의 말을 끊으며) 짹을 이루시는 분들에겐 지원금으로 1억이 지급됩니다.

태훈: 1억..이요?

인우: (NR)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출연료만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불로 우선 태훈씨에게 50만원을 입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참여가 꺼려지신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돈 50만원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태훈: 말도 안되는 소리..

(‘띠링’하고 태훈의 문자음이 울립니다. 문자 내용은 입금 메시지 태훈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놀라는 태훈)

태훈: 말도 안돼...

인우: (NR) 장소는 초대장에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인연이되어 뵙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태훈: 잠깐!!

(태훈의 전화가 끊깁니다. 혼자 독백하는 태훈의 뒤로 수영, 민구, 정인, 육만이 전화를 마치는 장면이 각각 이어집니다.)

태훈: 아..씨 이거 진짠가.. 돈도 들어왔고, 아 모르겠다 500만원만 받아도 지금 완전 개꿀인데..

수영: 좋아요, 한 번 해볼게요.

민구: 진짜 500만원 주시는거죠..? 그럼 참여 하겠습니다..

정인: 네~ 좋아요, 히히 재밌겠다

욱만: 저랑 장난 치시는거 아니지..? 에이씨, 끊겼네

(그리고, 5명의 얼굴을 각각 비추면서 NR로 태훈부터 육만까지 차례대로 한 마디씩 “좋아”, “심심한데”, “한번”, “가”, “볼까”를 이어서 말하고 페이드아웃)

S#2 방송국 건물 앞

(페이드 인)

(태훈이 건물 앞에 서있습니다. 초대장을 들고 이 건물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태훈의 모습)

태훈: (건물과 초대장을 번갈아보며) 여기가 맞..나? 음.. 맞는거 같은데 근데 건물이 뭐가 이렇게 작아?

(태훈이 중얼거리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 문으로 태훈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페이드아웃)

S#3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방송국 내부 시점에서 방송국 문이 열리면서 수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약간의 감탄을 자아내는 수영)

수영: 오~ 여기가 세트장인가? 음.. 좀 협소하긴하네 뭐, 듣보잡 회사에서 준비한게 그렇지 뭐.

(수영이 가운데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는 장면을 찍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여있는 룰카드를 발견합니다. 그걸 읽는 수영, 수영이 룰카드의 첫 번째 룰을 읽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룰카드를 전체화면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이도록 편집. 즉, 화면엔 룰카드가 띄워져 있고, 수영의 목소리만 나갑니다.)

수영: (룰카드를 들면서) 이게 뭐지? 꼭 알아야 할 연애마피아 룰? ㅋㅋㅋㅋ 아 유치하네, 보자.. 1번 기본적으로 이곳은 서로 짹을 찾기 위한 곳 이다. 최선을 다해 상대방에게 구애를...

-연애마피아 룰-

1. 기본적으로 이곳은 서로 짹을 찾기 위한 곳이다.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므로, 몰입도를 위해 휴대폰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2. 매일 각자 미션이 주어지고, 가장 빨리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마피아가 된다.
3. 남자 혹은 여자에게서 마피아와 의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즉, 여자쪽에서 마피아가 되면, 반드시 남자쪽에서만 의사가 될 수 있다.
 4. 의사 역시 미션을 가장 빨리한 사람이 된다.
 5. 마피아가 된 사람은 성별이 같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6. 공격은 매일 밤 10시 호감도 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7.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피아는 다음 날까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8. 의사는 공격을 막아줄 수 있다. 역시 호감도 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9. 기본 목숨은 2개이다. 이 2개의 목숨이 다 할 경우 게임에서 아웃된다.
10. 매일 아침 누가 지목되었는지 공개되고, 마피아 투표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마피아가 발각되면, 그 마피아에게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11. 의사가 마피아의 공격 방어를 성공하면 방어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그 의사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진다.

(11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룰카드를 읽는 수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수영: ...베네핏이 주어진다. 오 나름 재미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으면, 같은 성별을 아웃시켜서 쟁취하라는 거네?

(이때 룰카드를 보고 있는 수영의 뒤로 문이 열리며, 태훈이 들어옵니다. 이때 수영의 앞모습을 뒤로 해서 문을 찍어주세요. 태훈이 들어오면 수영이 뒤돌아보며 태훈과 눈이 마주칩니다.)

수영: (살짝 놀라며) 안..녕하세요?

태훈: (조심스럽게) 아.. 혹시 연애 마피아?

수영: (약간의 화색을 띠며) 아 네네 맞아요, 저도 참가자예요. 반가워요.

태훈: 아 저는 문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둘의 모습을 찍으면서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태훈과 수영은 어느샌가 친해져 말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말을 놓게 된 부분은 생략,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 나갑니다.)

수영: (환하게 웃으면서) ㅋㅋㅋㅋㅋ 진짜 그랬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 치지마.

태훈: (약간 흥분하며) 아니, 진짜라니까? 그 녀석이 딱 봐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분위기 잡고 이딴 식으로 하면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잘못했다면서 여기 꼭 와주시면 최대한의 사례를 드리겠다면서 막 그랬다고. 역시 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한다니까.

수영: 흐음..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빌빌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나저나 여기는 사람이 왔는데 환영 인사 같은 것도 없나?

(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다시 문이 열리며 민구, 정인, 옥만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치고 약간의 정적 후 민구가 먼저 입을 떼려다 태훈이 가로채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민구: (소심하게) 저.. 여기가..

태훈: (민구의 말을 가로채며) 오, 세 분은 같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태훈이고 이쪽은 임수영입니다. 아, 근데 어떡하죠? 저희는 벌써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1억은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정인: (놀라며) 네?

옥만: (피식 웃는다)

수영: (태훈을 바라보며 웃으며) ㅋㅋㅋㅋ 저기요, 문태훈씨 제발 나대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좀 장난끼가 많아요. 저는 임수영입니다. 얘랑은 절. 대.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태훈: (김빠진 듯이) 에이, 재미없게 이러면 서프라이즈가 안 되잖아.

수영: (고개를 저으며) 예~ 예~ 서프라이즈는 너나 실컷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기 카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의 말에 민구, 정인, 육만이 책상으로 다가온다. 책상에 놓인 카드를 하나씩 들고 읽는 모습. 카드를 보는 민구, 정인, 육만의 모습을 번갈아가면서 찍습니다. 그러다 먼저 입을 여는 민구)

민구: (수영을 바라보며) 저.. 저 근데 여기 이 호감도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민구의 질문에 수영은 민구를 바라본다. 이때, 수영의 눈을 마주치자 눈을 피하는 민구)

수영: (민구를 바라보며) 아.. 그건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곧 알려주지 않을까요?

민구: (여전히 눈을 피하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수영이 민구를 바라보는 시점을 찍고, 다시 수영의 앞모습을 찍으면서)

수영: (NR) ‘흠... 귀엽네?’

(모두가 카드를 읽고, 잡다한 이야기를 하던 중 마지막 참가자인 복희가 들어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복희는 수줍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복희를 태훈이 장난스럽게 맞이하려는 걸 수영이 재빨리 저지하고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복희: (수줍어 하며) 안..녕하세요..

태훈: (장난스럽게) 어서와요, 근데 이미 커.. 억

수영: (태훈을 장난을 가로막으며, 살가운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육만: 다 모인 것 같네요?

정인: (복희를 바라보며) 그러게요, 일단 다 여기에 앉을까요? 아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복희: (소심한 어투로) 아.. 저는 복..희라고 합니다.

태훈: (능청스럽게) 귀여운 아가씨가 오셨네~

수영: (경멸하는 표정으로) 아 진짜 좀!! 앉아

태훈: (여전히 능청스럽게) 미안미안, 긴장 좀 풀어줄려고 그랬지~

(6명이 다 모여 책상에 앉습니다. 자리에는 수영, 민구, 정인, 육만, 복희, 태훈순으로 앉습니다. 복희에게 카드를 건네는 수영. 복희는 카드를 읽고, 수영이 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 처음에 설명하는 듯한 말만 하고, 소리 없이 설명하는 느낌만 주고 넘어갑니다.)

수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영의 설명이 끝나고, 태훈이 자기소개를 주도합니다. 태훈부터 앉은 순서대로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들)

태훈: (우렁찬 목소리로) 그럼 우리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보죠? 우선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문태훈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네 ㅎㅎ, 제 좌우명입니다. 직업은 현재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진행하는 동안 씩씩하게 참여해보겠습니다. 빠이팅!

수영: (질색하다 환하게) 으.. 자기소개도 별로다, 흠哼, 저는 임수영입니다. 솔직히 게임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때, 수영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민구가 수영이 자개소개가 끝나고 민구를 바라보자 재빨리 고개를 돌립니다. 이를 바라본 수영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민구: (수영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고개를 휙 돌리고 살짝 당황한 듯이) 아.. 아.. 어... 정민구..라고 합니다.. (중간에 수영을 힐끔 보며)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인: (또랑또랑하게) 우와 다들 멋지네요! 저는!! 양정인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당~ 여기서 사랑도 찾고, 1억도 벌어서 나갈거에요!! 다들 잘 부탁드려요! 헤헤

육만: (담담하고 살짝 딱딱한 말투로) 최육만입니다.

(육만의 말이 끝나고 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복희가 자기소개를 하려던 중 정인이 끼어듭니다.)

복희: (소심하게) 아.. 저는 유복..

정인: (육만을 바라보며) 예? 자기소개가 그게 끝이에요?

육만: (담담하게) 네

정인: 아.. 네.. 그럼 복희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복희: (소심하게) 저는 유복희입니다.. 저는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인: (복희의 말이 끝나고 밝게) 와, 복희씨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각자 자기소개가 끝나고, 태훈이 수영에게 육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귓속말을 합니다.)

태훈: (귓속말로) 저 자식 뭔가 마음에 안들어

수영: (귓속말로) 누구?

태훈: (수영에게만 보이게 육만을 살짝 가르킨다)

수영: (귓속말로) 아, 육만씨? 왜?

태훈: (귓속말로) 자기소개 할 때 봤잖아, 그게 맞아? 싸가지가 없잖아.

수영: (태훈과 살짝 떨어지며 중간 목소리로) 야, 너처럼 말 많은 것보단 나아

(둘의 대화를 보고 있던 육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태훈에게 저돌적으로 말합니다.)

육만: (태훈을 바라보며) 거기, 제 얘기 하셨죠.

태훈: (당황하며) 아, 아니요? 제가 그 쪽 얘기를 왜 해요. 참 나

욱만: (태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여기랑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싸가지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태훈: (적반하장으로) 하.. 네, 막말로 다들 다 직업 얘기하면서 자기소개 하는데, 그쪽은 틱 이름만 말하고 태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정인: (약간 당황하며) 다들 싸우지 마세요, 왜 벌써 싸우시고 그래요.

욱만: (정인을 한 번 보고, 다시 태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제가 사정이 있어 직업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얼마 보지도 않은 사이에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수영: (옆에 있다 끼어들며 태훈에게) 그건 네가 잘못했어, 사과드려

태훈: (기가 찬다는 듯) 아니, 말 못할 직업이 뭔데? 그것부터 나는 너무 수상한데?

욱만: (말 없이 태훈을 노려보고 있다)

수영: (약간 화 내며) 야, 그게 말이 돼? 빨리 사과하라고

태훈: (한 발 물러서며) 아 네네~ 거 미안하게 됐수다

(정인과 수영의 중재로 태훈과 욱만의 기싸움이 끝난다. 욱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수영 그리고 정인을 바라보는 욱만)

수영: (욱만에게) 괜..찮으세요?

욱만: (수영을 살짝보고 정인을 바라보며) 네, 괜찮습니다.

(욱만이 계속 정인을 바라보고 있다 정인과 눈을 마주치고, 수영이 하는 말에 다시 수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깐 넓이 나간 정인)

수영: (한숨을 내쉬며) 재는 진짜 왜 저럴까

육만: (정인과 눈을 마주치고 다시 수영을 보며) 두 분은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수영: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도 여기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엔 유쾌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애네요.

육만: (잠시 침묵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자 드디어 방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는 방송. 모두가 방송에 집중합니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모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게임의 ‘플레이어’입니다. 게임은 카드에 적혀있던 규칙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누군지 맞혀봐’입니다. 사물함에 하얀 시트지를 떼내면, 각각 플레이어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각자 자신의 사물함에서 미션지를 꺼내 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고, 미션을 수행합니다. 가장 먼저 미션을 성공한 사람이 오늘의 마피아가 됩니다. 단, 5분 안에 미션을 들킨 사람은 미션이 실패 처리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모두 사물함으로 향해 시트지를 떼내고, 자신의 사물함을 확인한다. 6명의 참가자는 멀리 떨어져 각자의 미션을 확인한다. 한 명씩 미션지를 펼쳐서 보는 모습과 미션지를 찍어주세요.)

민구 미션지: (상대방: 양정인, 미션: ‘정인의 손가락 치수 알아내기’)

민구: (미션지를 본 민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정인 미션지: (상대방: 최육만, 미션: ‘육만에게 자기 이름 볼펜으로 적기’)

정인: (NR) ‘아.. 좀 무서운데..’

수영 미션지: (상대방: 정민구, 미션: ‘민구에게 귀엽다는 소리 듣기’)

수영: (미션지를 본 수영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NR) ‘앗싸, 민구네?’

육만 미션지: (상대방: 임수영, 미션: ‘수영에게 음식 먹여주기’)

육만: ...

태훈 미션자: (상대방: 유복희, 미션: '복희와 손 맞대기')

태훈: (NR) '음~'

복희 미션자: (상대방: 문태훈, 미션: '태훈에게 업하기')

복희: ...

(미션지를 다 읽은 6명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방송 소리)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첫 번째 미션은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결과는 6시 이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잠시 후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음)

(방송이 끝나고 문을 노크하는 소리, 정인이 문을 연다. 문을 여니 앞에 놓여있는 도시락, 정인이 도시락을 책상으로 가져오고, 6명은 우선 식사를 시작한다.)

정인: (도시락을 가져와 책상에 놓으며) 저희.. 그럼 우선 밥부터 먹을까요?

수영: 좋아요, 밥부터 먹읍시다

복희, 민구: (고개를 끄덕인다)

(각자 도시락을 가져가 책상에 앉는다. 태훈과 육만은 멀리 앉는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때, 냅다 수영의 입에 숟가락을 넣는 육만. 페이드 아웃)

Ep1. END